

[BMA 컬렉션, 미술관 보고(寶庫) 들여다보기] (96)일그러진 우리의 초상, 안창홍 '가족사진'

입력 : 2021-01-06 18:59:03

수정 : 2021-01-06 19:08:30



안창홍(1953~) 작가는 강렬하고 과감한 색채 사용과 파격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 사회 속 일그러진 개인의 초상을 드러낸다. 황폐해진 세상, 욕망이 만들어낸 부조리에 의해 변형되고 파괴된 인간성을 기괴하게 묘사된 인물의 얼굴로 보여준다.

안창홍은 1980년대 민중미술 동인 '현실과 발언'의 멤버로 활동하며 사회의 병폐를 화면 속에 담아냈다. 그러나 안창홍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작업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민중미술의 맥락과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 속 서사를 통해 시대의 부조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 도발적인 인물상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안창홍의 작업은 1980년대 민중미술의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을 넘어선다. 1980년대 새로운 구상회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 미술의 표현성과 개인의 서사에 주목한 '형상미술'의 키워드 속에서도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1982년 작 '가족사진'은 안창홍 작가의 가족사진 시리즈의 초기작품 중 하나이다. 기존에 알려진 모노톤의 작업과는 다른 색채감이 눈에 띄는 작업이다. '가족사진'이라는 제목만 보면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순간을 포착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안창홍의 가족사진에는 눈과 입이 검게 뚫린 인물들의 초상이 등장한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전복한다. 으스스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이 가족의 사진은 일상을 둘러싼 시스템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한다.

가족, 더 나아가 삶이라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 일련의 관계성과 의무들. 이러한 무거운 책무 아래에 짓이겨진 자아를 드러내는 안창홍의 작업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 않은가?'라고 씩씩한 자문을 던진다.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의 일상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비대면, 거리두기 등의 사회적 의무는 개개인의 어깨에 짐 지어졌다. 고립은 미덕이 되었고 고독은 일상이 되었다. 이 '멋진' 신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 속에서 안창홍의 작업에 존재할 법한 일그러진 '나'의 초상을 마주하게 된다. 영민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삶이 지닌 아픔과 적폐를 드러내는 안창홍의 작업은 이렇듯 시대를 초월한 공감을 주고, 우리의 오늘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김경미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